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12차 세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2번째 세션, 바울,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울 신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리의 정점이며, 우리는 바울의 본문부터 시작하여 그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6:1~14.

로마서 8:14~17. 로마서 8:38~39. 로마서 12:4, 5. 고린도전서 1:30, 31. 고린도전서 3:21~23. 고린도전서 10:16~22. 고린도전서 15:21~23.

고린도전서 15:58. 고린도후서 1:3~7, 고린도후서 1:17~22, 고린도후서 5:16~21. 고린도후서 12:1과 2, 최소한 피상적으로. 갈라디아서 2:15~21.

갈라디아서 3:13과 14. 갈라디아서 4:6. 갈라디아서 5:22, 23. 에베소서 1:7~10. 에베소서 1:11~13. 에베소서 2:4~10. 에베소서 2:11~16. 에베소서 2:18~22. 에베소서 6:10~12. 에베소서 6:21~22. 빌립보서 3:12~14.

빌립보서 4:19. 골로새서 1:13~14. 골로새서 1:27~28. 골로새서 2:9~10.

골로새서 3:1~4. 골로새서 3:15. 데살로니가전서 4:16. 디모데후서 1:8~9. 디모데후서 2:1, 디모데후서 2:10.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요약 이상의 우리의 조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조사는 좋은 단어가 될 것입니다 . 우선, 로마서 6:1에서 16까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죽음에 연합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부활에 연합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없어져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죽은 자는 아무도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요,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실 줄을 압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가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사시는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전에 그에게 반율법주의를 돌린 원수들을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5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나는 결코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그러나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 더 풍부해진다면, 왜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까?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여 비난하듯이, 왜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바울의 결론?그들의 정죄는 공의롭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에게 반율법주의를 돌린 적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비난하듯이, 왜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죄는 정당합니다(로마서 3:8). 여기서 그는 로마서 6장에서 이 거짓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죄가 더해지면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썼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더 나빠 보일수록,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좋아 보인다. 이제 그의 적들은 비난한다. 은혜가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6:1. 바울은 이 제안에 움츠러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대답한다.

죄에 죽은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살 수 있겠는가? 2절. 더글러스 무는 역으로 작업하여 바울의 주장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죽으셨습니다. 8-1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3-7절.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죽었습니다.

2절. 하지만 언제 우리는 죄에 죽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3절. 바울이 기독교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던 것처럼, 그와 연합하여 우리도 죄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삶에 대한 죄의 질식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잔인한 주인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사신 다른 주인에게 속합니다.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분은 바로 그 분입니다.

인용문, 우리는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것은 4절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죄 가운데 살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2절. 그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세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례는 그것이 나타내는 것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위해 죽은 자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주님의 만찬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메시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의식 자체는, 반복하지만, 유아에게 행해지든 신자에게 행해지든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례의 메시지를 믿는다면, 마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의 메시지를 믿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1:23. 예수께서는 교회가 결코 복음을 잃지 않도록 복음을 의식으로 표현하여 주님의 만찬에서 이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복음은 설교단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이 세례와 성만찬의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전달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6절). 우리는 그의 죽음에 참여합니다(5절, 8절). 그리고 부활도 참여합니다(5절).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8절).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지금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4절, 6절, 7절, 11절~13절). 실제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인용하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나 너희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니라-13절.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또한 우리의 최후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몸의 부활. 5절과 8절.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부활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될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5절과 8절에 관해 제임스 던과 동의합니다. 바울은 이것들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들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서 이

서사시적인 소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전한 결과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 8절. Dunn은 그것을 위해 우리도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미래를 단순히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삶에 대한 미래의 참여를 언급해야 합니다. 11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형용사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추가한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음. 이 진술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발견됩니다. 9절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실 줄을 압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와 결합될 때, 우리는 우리의 대리자, 대표자, 대용품이신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캠벨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영역이나 영역 내에 있는 위치 개념을 표현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캠벨의 책,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역이나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고, 전체 표현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영역에 대해 말합니다.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 영역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로마서 8:14-17. 바울에 대한 저의 접근 방식은 한 구절에서 다른 구절로 넘어가서 미래의 강의에서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 :14-17.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영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것을 기념합니다.

입양의 영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입양의 영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격의 인격들의 이름에 대해 생각할 때, 처음 두 인격의 이름은 입양 교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그분은 믿는 자들을 그의 아들로, 성인 아들로, 또는 딸로서 그의 가족으로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그에 관한 모든 권리, 특권, 책임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입양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입양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속죄와 부활의 공로로 죄의 노예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그는 일을 합니다. 입양에 상응하는 속죄의 일은 구속입니다. 입양의 필요성은 죄, 자아, 심지어 사탄에 대한 노예 상태나 속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인류를 두 가지 범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 십자가에서의 폭력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하셨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그들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자녀로 선포하고, 그의 가족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른 칭호만큼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그를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확실히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놀랍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한 마디로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의 영, 곧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 입양의 가족적 이미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의 이름을 바꾸어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시거나, 갈라디아서 4장, 또는 여기서는 아들의 영 또는 입양의 영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입양에 관하여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입니다. 1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내적으로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은 15절에서 그가 행하는 행동, 즉 운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아들로 받았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성령이 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초반, 아마 2절이나 3절일 겁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 없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의미는 확실히 이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말은 참되다. 아무도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적으로, 성령을 떠나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그것은 입양의 영이 그들이 그 말을 외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로써의 입양의 영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결과, 입양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들됨과 배치됨 안에 상속이 온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입양에 관한 작은 책 Adopted by God를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입양 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확장된 은유라는 것을 보고 놀랐고, 보는 것이 훌륭했습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 대문자 B입니다. 그는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상속은 무엇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상속받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맨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21~23.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분열된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분열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유산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든 아폴로든 게바든 세상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현재든 미래든 모두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거룩한 삼위일체, 새 하늘, 새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아들과 딸들과 함께 구속된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상속자입니다. 오직 진정한 아들과 딸을 위해서만. 아버지와 아들과 닮은 가족을 가진 사람들. 이것은 이미 로마서 8장 14절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이자 신성한 인도인 신성한 인도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도된다는 단어는 군인들이 군대에서 상사를 따르는 방식으로 성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순종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아들됨의 진실성도 이 조건으로 시험받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겪음으로써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은 구원의 사건에서 모든 측면에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칭의에서 죄의 형벌, 점진적 성화에서 죄의 권세, 심지어 죄의 임재, 최종 성화까지. 하지만 그의 죽음에서 그와 연합하는 것은 또한 지금 그와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부활에서 그와 연합하는 것이 나중에 그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로마서 8:38, 39.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보존 구절의 끝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구절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안전한 이유에 대한 네 가지 큰 주장이 쌓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보존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 구절의 주제가 보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저는 28장부터 39장까지 읽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가 예정하신 자들을 그는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신 자들을 그는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의롭게 하신 자들을 그는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뿐 아니라 부활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은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종일 너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나이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집니다. 아니,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두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나 통치자나 현재 사물이나 장래 사물이나 권능이나 높이나 깊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주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시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주장은 그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예정하고, 부르고, 정당화하고,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전에 그의 백성을 예정하신 것에서 죽은 자의 부활 후에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네 가지 동사, 미리 아셨다, 예정하셨다, 부르셨다, 정당화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다섯 가지 동사는 모두 과거형으로, 이 사건들이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줍니다. 물론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인들의 영광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였고, 그들은 그것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헌신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궁극적 진술은 이렇다. 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31절과 32절.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오, 사탄, 귀신, 주님의 원수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의미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여 고발할 것인가입니다.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송은 우주의 최고 법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갔고, 우리의 죄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장이자, 여기서 구절 수 측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포괄적입니다. 나는 죽음도 삶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재 것도 장래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은 로마서 8:38, 39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끝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보존을 주장합니다(28~30절): 그의 신성과 능력, 31, 32절.

그의 정의, 33, 34. 그리고 그의 사랑, 35~39. 저는 캠벨, 콘스탄틴 캠벨을 따릅니다. 그는 그리스어 사전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를 무언가가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인정됩니다. 로마서 12:4, 5. 3절

,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이르노니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냉정하게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들이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 지체가 서로의 지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요 실제 부분을 12:1과 2에서 시작한 직후, 주로 교리적인 1장부터 11장까지를 바탕으로 바울은 독자들에게 겸손을 촉구합니다(12:3). 그는 호소의 근거로 우리 몸을 지적합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로 사용합니다.

한 몸, 곧 인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들이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4절). 우리 몸은 지체와 기능의 다양성이 특징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교회에 비유하여 호소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자는 서로의 지체입니다(5절). 인간의 몸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전히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점은 사도가 여기서처럼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은유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처음 언급했을 때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5절).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역에 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의 영적 몸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그림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헤르만 리더보스, 그의 위대한 책 *바울, 신학 개요*

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와 의 통합을 말한다고 올바르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신체 지체가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속합니다.

이 은유는 가르치기에 이상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의 관계,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체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몸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에 대한 관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개별적으로 서로의 지체들이지만, 인용문을 닫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6절에서 8절까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들에게 주님을 적절히 섬기라고 격려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이 강의에서 앞서 언급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0과 31, 26절부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하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고귀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 곧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셨으니 이는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에서. 은혜와 구원에 대한 매우 간결한 요약입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앞의 문맥에 걸맞게, 고린도인과 다른 모든 신자들이 아들과 구원의 연합을 이룬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가 여기서처럼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도하는 의미도 이례적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언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를 표현하지만, 캠벨은 영역, 행위, 연합 등을 포함한 다른 뉘앙스가 종종 붙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는 정확하게 말하길, 언어는 그리스도와의 어떤 종류의 연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즉, 그 뉘앙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저는 1고린도서에 대한 샴파와 로스너의 주석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인용문: 바울은 구원의 축복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놀랍지 않게도 이 문구는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다이슨만 이 문구의 신비롭고 경험적인 의미, 즉 신자의 영혼 속의 종교적 에너지를 강조한 반면, 바이스와 슈바이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종말론적 지위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존재 양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데이비스, 위켄하우저, 태너힐은 중간 경로를 설정하여 국가와 지위에 대한 강조가 모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객관적인 지위에서 비롯됩니다. 30절의 다음 네 가지 용어가 암시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객관적인 지위를 누리고 다른 신자들과 연대하여 종말론적 존재의 새로운 양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그의 몸의 지체로서 앞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인 구원론적 원리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구원론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는 그에게 연합된 모든 다른 사람들과 연합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그와 연합된 자들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바울은 네 가지 복을 언급하지만, 그것들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자의 세 가지는 첫 번째 것을 풀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30절). 이 지혜는 고린도인들이 소중히 여겼던 지혜와 충돌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교양 있는 수사학적 설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어리석음은 인용 부호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중심으로, 소위 약함과 어리석음을 지닌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한 메시지는 실제로는 권능과 지혜의 메시지로 드러났습니다. Barrett의 말은 적절합니다. 인용문, 진정한 지혜는 웅변이나 신의 존재에 대한 영지주의적 추측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발견되는데, 세상은 그 자체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실행된 계획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된 구원을 줍니다.

그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된 이 지혜에는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특징짓지만, 바울의 메시지의 요점은 그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로움이라는 법정 용어를 주는데, 이는 지금과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거룩함이라는 도덕적 용어를 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성도로 만드셨고, 우리의 순결함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구속이라는 용어를 주는데, 이는 노예 시장에서 대속의 값, 즉 하나님의 아들의 피나 폭력적인 죽음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한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되신 지혜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이 있으며, 삶에 적용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취하려고 시도한 많은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사도는 목적 절을 따라가며,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31절)고 합니다.

바울은 26절에서 29절의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강하고 고귀한 가문의 소수만을 구원에 부르시고, 26 그 대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 심지어 그렇지 않은 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27, 28절).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의 지혜와 그토록 대조적으로 행동하셨을까요? 바울은 크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인용문,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용문 닫기. 이제 바울은 예레미야 9:23, 24를 인용하여, 인용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31을 씁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지혜, 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즉, 주님이 그들의 자랑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0과 31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분,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모든 자랑을 주 예수님께 돌리면서 끝맺습니다.

사도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기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에 대해 그분만이 찬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자랑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제거되며, Fee가 요약한 바와 같이, 오직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한 Gordon Fee의 주석도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 :21-23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1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혜롭게 하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그는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교활함에 사로잡는도다. 또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니,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나 세상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현재든 미래든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회중의 연합을 회복하고자 하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고린도 사람들이 파별로 나뉘었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도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 아폴로, 게바, 우리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3절,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노라.

그는 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파별로 나누는 것은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상속자로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루고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영광스러운 교리를 다루는 본문 구절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입니다.